

# 시가지엔 형형색색 '꽃 단장'

목포 시가지가 색색의 다채로운 꽃물결로 뒤덮여 있다. 목포시는 6월 한 달 동안 육묘장에서 재배한 여름꽃을 주요 도로변에 식재해 한층 밝고 아름다운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여름철 무성한 잡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광지 주변 공원과 녹지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서 미항 목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 백일홍 등 여름꽃 60만본 수놓아 각종 축제 앞두고 명품 꽃길 조성



목포시가 직영 중인 석현동 꽃 육묘장에서 인부들이 메리골드 출하를 위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일용 인부들이 도심 간선도로 교통섬에 여름꽃을 식재하고 있다.

◇시가지 수놓은 여름 꽃=이번에 목포 시가지를 수놓은 여름 꽃은 페튜니아, 메리골드, 백일홍, 맨드라미, 채송화 등 13종에 총 60만 본에 이른다. 이 꽃들은 석현동 801번지 일대 총 면적 7590㎡ 규모의 시 소유 육묘장에서 출하했다.

공원녹지과는 이곳 육묘장에서 ▲봄꽃 8종 70만본 ▲여름꽃 13종 60만본 ▲가을꽃 8종 40만본 ▲겨울꽃 4종 30만본 등 연간 200만본의 각종 계절꽃을 생산한다. 이 가운데 170만본은 종자를 구입해 육묘시키고, 6종 30만본은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를 시가로 구입해 식재한다면 연간 8억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시 육묘장 직영을 통해 종묘비와 운영비 등을 감안해도 연간 2~3억원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육묘장에서 생산된 꽃들은 유달산 꽃 축제와 목포 향구축제 등 주요 행사를 비롯해 ▲교통섬 12개소 3770㎡ ▲가로화단 4개소 3500㎡ ▲삼향천변·수변공원·철도 폐선부지 화단 3000㎡ ▲주요 관광지 화분 700개(대형 500, 중형 200) ▲가로등과 난간 꽃걸이 7개 구간 840조 ▲시내 공한지 23개동 6000㎡에 공급된다.

또 축제나 각종 행사에 필요한 꽃 밧과 구조물도 직접 설치한다. 게다가 화훼계 흥운미 실무관은 토피어리(구조물) 제작 기법을 취미로 배워 목포시 마스코트 등을 직접 제작해 연간 1000만원대의 예산을 절감,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말 개최되는 '목포 향구축제(구 해양문화축제)에 대비해 백일홍 등 6종 10만 본을 생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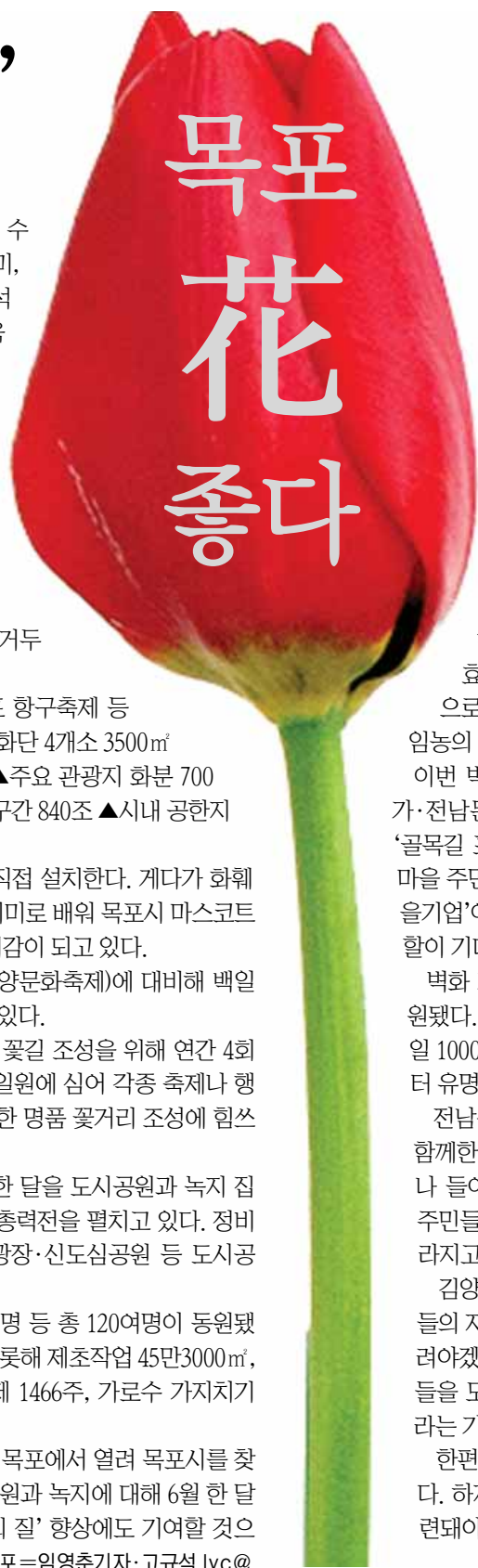
공원녹지과장은 "세계적 꽃이 어우러지는 시가지 꽃길 조성을 위해 연간 4회에 걸쳐 시기별로 33종의 200만본을 생산해 시가지 일원에 심어 각종 축제나 행사는 물론 목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깨끗한 명품 꽃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녹지 관리 총력=공원녹지과는 6월 한 달을 도시공원과 녹지 집중관리 기간으로 선포하고 정지작업과 잡초 제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유달산공원·노을공원·십자영 도시숲·평화광장·신도심공원 등 도시공원과 녹지, 등산로 등 모두 145개소다.

이번 총력전에는 일시 사역 95명과 지역공동체 25명 등 총 120여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산림지역 등산로 풀베기를 비롯해 제초작업 45만3000㎡, 수백전지 24.5km, 정경활동 65만1000㎡, 병해충 방제 1466주, 가로수 가지치기 12개 노선 528주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원녹지과 녹지 담당은 "광주 U대회 축구경기가 목포에서 열려 목포시를 찾는 외지손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관광지 주변 공원과 녹지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특별 정비에 나서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고규석 lyc@



# 골목엔 각양각색 '그림 단장'

## 남농 예술촌 서린 목원동 마인게터길 벽화 그리기 등 문화마을 탈바꿈 활발

쇠락해가는 목포 원도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목포의 감천마을'을 꿈꾸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관 주도라 아닌 민간주도로 이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마을은 벽화그리기 등 창조적 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달동네에서 활기찬 문화마을로 탈바꿈했다.

최근 목원동 마인게터 길에 이색적인 벽화가 등장해 환경 미화는 물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인게터 길은 목포역에서 노적봉으로 연결되는 목포의 대표적인 골목길로, 주변에 남농과 임농의 예술촌이 서린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 벽화 사업은 김양희(목원동 27동 통장)씨와 장우호(화가·전남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장)씨가 의기투합해 만들어낸 '골목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문화예술협동조합은 마을 주민과 예술가들이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예비 마을기업'이어서 목포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벽화 제작을 위해 전남예과 미술과 1~3학년생 210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1주일 동안 가로×세로 각 10cm 크기의 나무 타일 1000개를 제작해 담벼락을 수놓았다. 작품도 인물화에서부터 유명화가의 패러디 작품, 추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남문화예술협동조합 장우호 대표는 "골목 보존에 뜻을 함께한 미래의 예술가들이 재능기부를 한 것"이라며 "벽화 하나 들어섰을 뿐이지만, 골목에 가득하던 쓰레기가 사라지고 주민들은 집 앞에 화분을 내놓기 시작하는 등 마을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희 통장은 "목원동은 역사와 전통이 서린 명소로, 주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하다"며 "문화적으로 죽어가는 동네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동네 재건을 위해 창의력이 뛰어난 예술가들을 모시고 주민들 스스로 시작하다 보면 힘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번 벽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지역에 그려진 벽화 구간은 모두 20여 곳에 달한다. 하지만 벽화의 수명이 5년에 불과해 유지·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남예과 미술반 학생들이 골목길 벽화 제작을 위해 나무 타일 1000개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완성된 마인게터 골목길 벽화의 모습.

## 목포대·무안군농기센터 '목포대 4H' 조직 다양한 활동

### 승달산서 자연보호 활동도

목포대학교 원예과학과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목포대 4-H'를 조직해 미래 농업인력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사진>

지난 4월 만들어진 '목포대 4-H'팀은 지난 5월 생활과학관 건물앞 식물 식재를 통한 학교주변 정화활동을 첫 시작으로 지난 12일에는 승달산을 등반하며 자연환경 보존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농촌에 많은 일손이 필요 하는

8월부터는 무안 관내 농촌을 직접 방문해 농업활동 봉사와 효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4-H는 두뇌(Head), 마음(Heart), 손(Hand), 건강(Health)의 이념을 가진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운동으로, 국내에서는 지(智), 덕(德), 노(勞), 체(體)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목포대 원예과학과 유영권 목포대 교수는 "목포대 4-H를 통해 무안군 지역 농촌 봉사활동 및 환경미화 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과제 활동을 통해 원예학과 학



생들이 미래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남약=임동현기자 idh@

## 재난시설 안전 강화 총력...박홍률시장 현장 점검 나서

목포시가 재난시설 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 여름 강한 태풍이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고 강수량 또한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n 예보에비껴 긴장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지난 18일 대양산단 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현장, 소망장애복지원, 종합 장사시설(목포 추모공원), 목포 도축장,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북항 하수처리장 등을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박 시장은 "현장에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안전관리 노력을 지속해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목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일에도 용당 저류조와 해안로 배수펌프장, 목포 공생원, 삼향천, 하당 배수펌프장, 신흥동 급경사지, 남해 하수처리장 등 현장을 찾았다.

박 시장은 담당자들에게 "다른 공사현장과 재난 취약 시설물은 국·소·단장 책임 하에 전반적인 일체 점검을 시행해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목포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안전 대진단에 따라 693개 시설을 점검했고, 계절별·시기별로 수시 안전 점검을



박홍률 시장이 재해 위험지구인 신흥동 급경사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실시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 제60회 호남예술제

## 최고상 발표회 & 시상식

일시 2015. 6. 27(토) 오후1시 장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예술꿈나무들의 발표회! 무료 관람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제60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 부문 개인과 단체 최고상 수상자들을 초청,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문화예술의 터전을 가꿔줄 미래의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입니다.

주최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남문화재단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